

西歐에서의 佛敎研究略史**

沈 在 龍*

1. 서양인의 불교연구사 시대구분

西歐人들에 의한 佛敎研究의 역사를 時期別로 크게 나누어 보면 대략 1826년을 前後하여 두 시기로 나눌 수 있다. 佛敎를 學問的으로 理解하려던 우선 그 敎理가 담겨진 經典을 解讀하여야 하는데, Pali 語辭典의 편찬은 겨우 1826년에 가서야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우선 19세기 初半까지 西歐人들이 東洋文化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佛敎를 어떻게 理解 또는 誤解하게 되었던가 略述하겠다. 이것은 佛敎研究 前史라 부를 수 있다. 다음으로 1826년 이후 현재까지의 本格的인 研究史를 다시 細分하면 ① 1877년까지를 Eugene Burnouf(1801~1852)가 주름잡던 初學期, ② 1942년까지를 Sylvain Levi (1863~1935), Louis de La Vallée Poussin(1869~1938), Herman Oldenberg(1863~1934), Th. Stcherbatsky(1866~1942), Rhys Davids부부등이 활약하여 佛敎學의 基礎를 다진 中期로 잡을 수 있고, ③ 1943년 이후는 研究史가 형성되는 現在이기에 간단히 주요 학자들의 학문경향 및 그 공헌, 앞으로의 전망 등을 略述하려고 한다.

2. 研究前史—西歐人과 佛敎의 접촉

Alexander大王이 인도를 정복하기(326~323 B. C) 훨씬 전부터 인도에 관한 이야기는 희랍에 알려져 있었다. 브라만과 沙門을 언급한

* 서울大學校 人文大 助敎授(佛敎·韓國哲學)

** 이 글은 1980년 2월 13일 서울大 東亞文化研究所에서 발표한 내용을 요약한 것임

Megasthenes는 이미 300B. C에 Pātaliputra를 다녀갔다고 한다. 그러나 직접 부처(Boutta)에 대해 기술한 사람은 Megasthenes보다 5백년 뒤 Alexandria에 살던 Clement였다. Pali경전 가운데 Alasanda란 이름으로 Alexandria가 도합 7번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 부처의 계율을 지키고 부처를 神처럼 존경한다는 Clement의 기록은 佛敎에 관한 西歐人 최초의 것임에 틀림없겠다. Hieronymus(347~419)는 부처가 처녀의 허리에서 탄생했음을 기록했다. 中世 기독교권에서 존송을 받던 Barlaam과 Josaphat 성인*의 이야기는 여러나라 말로 번안되며 중세를 풍미하던 것이었는데, 부처의 설화가 알려지면서 곧 Josaphat의 이야기와 너무나도 비슷하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1612년 포도아의 Diogo do Couto는 “Josaphat는 인도왕의 아들로 태어나 부처의 일생과 똑같은 성장을 한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Josaphat성인의 설화가 그 기원을 석가모니 부처의 설화에 두고 있다는 사실은 19세기에 와서야 학자들에 의해서 증명되었다. 즉 8세기말에 ‘부처님일대기’란 책이 Pehlevi(중세 Persia어) 말에서 아랍말로 옮겨지고 1048년에 희랍어에서 Latin어로 번역되면서 거의 모든 서구어로 옮겨졌던 것이다.

서구세계가 불교와 최초로 접촉하기는 13세기에 교황 Innocent IV가 Francisco와 Dominican 수도사들을 몽고의 Khan에게 사절로 보냄으로써 시작됐다. 1254년 Karakorum에서 반년을 보낸 Willem van Ruysbroeck이란 Francisco 수도사는 Tibet의 라마僧들에 관한 상세한 기록을 남겼다. 그러나 불교는 물론 東洋에 대해 서구인의 상상력을 자극한 것은 무어니 무어니해도 Marco Polo의 東方見聞錄(Divisament dou Monde)이었다. Ceylon(현 Sri Lanka)을 다룬 곳에서 Marco Polo는 부처의 생

* Barlaam과 Josaphat성인의 설화는 6,7세기경 東部 Iran이나 Turkestan지방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Barlaam’은 Sanskrit語의 ‘bhagavān’ 즉 부처의 異名인 ‘世尊’이란 말이 訛脫變異한 것이며, ‘Josaphat’는 bodhisattva에 由來한다. 기독교선교사들이 佛敎國에 傳敎하기 위한 宣傳用으로 부처의 일대기를 각색·번안한 이야기다.

애를 거의 정확히 전달하고 있다. Marco Polo가 1291년 고향으로 돌아간 뒤 교황 Nicolas IV는 계속 수도사들을 燕京으로 파견하였는데, 저들의 여행기 가운데 John Mandeville의 것은 1365년에 쓰여진 뒤로 15세기에서 18세기말까지 여러나라 말로 번역되어 22판이나 출판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기독교 선교사의 눈에 비친 “동양의 종교”는 아직 분명한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았고, 그 교리에 이르러서는 전혀 무지였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Vasco da Gama가 1497~8에 인도항로를 개설하면서 16세기에는 더욱 많은 선교사들이 중국, 일본 Ceylon, Siam과 Indochina로 흘러들어간다. 1547년 예수회의 Franciscus Xaverius (1506~1552)는 Goa에서 일본상인 Yagiro를 만나 석가의 일생과 수도승의 생활에 대해 전해 듣고 직접 편지로 본국에 알렸다. 16세기 말에 예수회선교사들은 기독교도들이 Tibet에 살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처음으로 포도아의 Antonio d'Andrade (1580~1634)가 1624년 Tibet에 들어가서 보고 들은 것을 1626년 Lisbon에서 발간했다. 계속해서 선교활동을 펴지만 Tibet에서 기독교는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1661년 북경에서 Lhasa에 들어간 두 선교사들에 의해 처음으로 西歐에 Lhasa의 소식이 전해지고, 18세기초반에 이태리의 Capuchins과 Jesuits에 의해서 Lhasa에 선교본부가 설치된다. 그 중 Francesco Orazio della Penna (1680~1745)는 Tibet어에 통달하여 Boutan어 사전을(3만 5천 단어) 편찬했다 (1826년 Serampore에서 英譯本이 출간됨). 1714년 예수회의 Ippolito는 Desideri (1684~1733)는 Dehli를 떠나 Lhasa로 들어가 5년동안 Tibet어와 종교를 연구 4권의 여행기를 남겼는데, 당시 연구수준으로 봐 대승불교의 오의까지 건드려 서구인의 불교연구서로서는 시대를 앞지른 감이 없지 않다(1931, 37년에 부분적 英譯本이 나왔다 1954~1956년에 이태리원본이 출간되었다).

3. 서양인의 본격적 불교연구사

3.1. 初 學 期

1826년에 Burnouf(1801~1852)와 Lassen(1800~1876)의 Pali어문법서가 쓰여짐으로써 불교원전 연구의 기초가 놓여지게 됐다. (Essai sur le Pali ou langue sacrée de la presqu'île au-delà du Gange, Paris, 1826) 병약한데다가 Collège de France의 교수직이란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Burnouf는 Pāli 원전연구를 위한 방대한 계획을 세웠다. Introduction à l'étude du Bouddhisme indien 둘째 권은 그의 夭死로 完成을 보지 못했으나, 그가 섭렵한 Pāli 및 Sanskrit 原典의 방대함과 그 연구의 치밀도는 지금까지 거의 수정을 받지 않을 정도이다. 불교원전공부 밖에 Avestan과 Pehlevi원전, 그리고 Sinhalese, Burmese, Siamese의 번역본과 주석서를 공부했고, Bengali, Marathi, Gujarati 등 Indo-Aryan 계통어를 자습하며 각기 사전을 만들 정도로 열성적이었다. 1837년 Kathmandu의 Brian Houghton Hodgson(1800~1894)으로부터 Sanskrit어 불교원전 88冊을 기증받은 아시아학회(Société Asiatique) 회원 Burnouf는 그 해 4월 25일부터 공무를 뺀 여가를 온통 法華經 읽기에 전념하여 1839년 佛譯을 完結짓고, 계속 Divyāvadāna, Avadānaśataka가 Introduction (Paris, 1844)에 佛譯되어 실리고, 遺作가운데는 거의 完譯에 가까운 Aṣṭasāhasrikā 반야경이 들어 있는가 하면 앞서도 언급한 대로 불교원전 연구에 관계되는 모든 언어를 독습할 정도라 그의 마지막 15년의 생애에 남겨 놓은 저작은 우리를 그저 놀라게 할 뿐이다.

Burnouf는 Nepal에서 나오는 Sanskrit 원전과 Ceylon의 Pāli 원전을 기준해서 인도불교를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Sanskrit어로 된 불교원전의 Tibet역경본의 중요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Burnouf의 이와 같은 인식은 금세기 들어 와서야 그 진가를 인정받고 있다. Burnouf

의 Pāli어 사전은 결국 출판의 빛을 보지 못하고 말았지만, 1875년에야 서구 최초의 Pāli어 사전이 Robert Caesar Childes(1838~1876)의 손으로 출간됐다. 그 뒤 Pāli원전연구는 순풍에 돛을 단듯이 진행될 수 있었다.

Burnouf의 기초적 업적 이외에도 Abel Rémusat(1788~1832)는 1815년에 法顯의 佛國記를 그의 후임 Stanislas Julien(1797~1873)은 玄奘의 西遊記를 번역하여 인도의 불교사를 밝혔다.

3.2. 中期(1877~1942)

1877년을 西歐 佛敎研究史의 새로운 起點으로 꼽는데에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 이해부터 Pāli원전들이 편집되고, 계속 Sanskrit어 불교경전이 많이 출판되지만, 무엇보다도 눈에 띄게 중량급 학자들의 노작이 계속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무렵부터 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1877년 Fausbøll이 本生譚 첫권을 발간함으로써 시작된, 원전 출판사업은 1897년에 7권으로 Anderson의 索引과 함께 完刊되고, Oldenberg는 律藏을 1879년부터 1883년 사이에 출판했으며, 드디어 1882년에는 Pāli 원전연구회(Pāli Text Society)의 잡지가 첫 선을 보였다. 1930년까지 五部 Nikāya가 모두 出刊되며, Pāli경전 이외에도 Oldenberg가 Dīpavamsa를 1879년에, Trenckner가 Milindapañha를 1880년에 각각 편찬·출간했다. 동시에 번역사업도 활발하여 Max Müller의 東方聖書 시리즈(Sacred Books of the East) 13, 17, 20권으로 Oldenberg와 Rhys Davids는 Pātimokkha, Mahāvagga, Cullavagga를 각각 英譯해 냈다.

1852년 Burnouf死後 Sankrit語 불교경전연구는 시원치 않았으나, 1881년에 MaxMüller가 대승불교경전의 꽃이라 할 수 있는 金剛經을, 이어서 大小 無量壽經을 英譯했다.

이 때의 학문적 업적은 물론 불교경전의 수집·편찬·출판에 머물렀지만 그경전의 해석상에도 몇 가지 재미난 문제점을 제기하고 활발한 논전을 전개했다.

우선 Senart의 *Essai sur la légende du Buddha*는 1873년부터 1875년에 *Journal Asiatique*에 실린 뒤 1882년 第2版으로 修正되어 나왔는데, 거기서 Senart는 比較神話學과 對別되는 歷史神話學(historical mythology)의 方法을 창안·활용하여 부처에 관한 이야기를 인도의 종교적 개념에서 산출된 역사적 근거를 가진 것으로 보아, 이제까지 Hendrik Kern(1833~1917)등이 주장한 대로 부처의 역사성을 부정하는 이론에 일대 전기를 가져왔다. Senart에 따르면 부처의 일대기엔 전설적 요소와 역사적 요소가 섞여있는데, 일단 전설을 빼어내면 역사적 진실을 찾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Senart의 역사종교학적 방법론은 Hermann Oldenberg(1854~1920)에 의해 공격을 받게 된다. Oldenberg는 1881년에 *Buddha Sein Leben, seine Lehre, seine Gemeinde*에서, Pāli경전의 자료적 가치는 그대로 믿을만하다고 주장한다. 이 뒤로 Senart의 신화학적 방법과 Oldenberg의 합리적 설명 방법을 대조해 놓고 보는 것이 관례가 된다. 1949년에 나온 Foucher의 *La Vie du Bouddha*는 Senart의 부처님은 人性이 결여되어 있고, Oldenberg가 기술했던 부처님은 神성이 결여한 것으로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Senart의 설명은 구조주의적(Structuralistic)이고, Oldenberg는 原子論的(atomistic)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Oldenberg의 *Buddha*는 불교와 브라만교와의 관계를 논한 一章이 들어 있어, 그뒤 학자들 사이에서 끊임없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같은 책에서 Oldenberg는 Sāmkhya 철학과 불교사이에 아무런 관련도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 역시 未解決의 문제로 남아있다. 또 Yoga가 불교에 미친 영향을 처음으로 언급한 사람은 Kern이다.

경전의 편찬과 번역을 둘러싼 해석상의 문제로 논쟁을 거듭하는 동안 한편 Aśoka大왕의 石刻銘의 解讀에도 크나큰 진전이 있었다. Burnouf의 노작을 이어 받아 Kern, General Alexander Cunningham(1814~1893), Senart등은 Aśoka銘을 해독하여 B.C. 3세기 경의 대중불교상을

알아보는데 기여했고, Oldenberg가 주장하는 대로 수도승단만이 불교의 진수를 전하였다는 학설을 수정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교의 전모를 보려면 수도승 이외의 일반대중에 미친 영향도 고려에 넣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었다.

또한 1895년과 그 다음해 Nepal에서 발견된 Aśoka銘은 1870년 Cunningham의 주장대로 부처가 Gorakhpur동쪽 34마일되는 Kasia 마을에서 열반에 드셨다는 역사적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한편 중앙아시아 Kashgar 영사인 Petrovskij가 여러나라 말로 된 불경을 Serge Oldenberg(1863~1934)에게 보낸 이래, 각 나라는 경쟁적으로 원정대를 파견하여 불란서, 독일, 일본, 러시아는 금세기초에 Sanskrit, Kuchean, Agnean, Khotanese, Sogdian, Uigur, Tibetan, Chinese로 쓰여진 거대한 불경잔권을 Paris, London, St. Petersburg, 일본등에 수집해갔다. 그 편집·해석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19세기 60년대엔 그뒤 불교학계를 주름잡는 신진학자를 대량으로 배출했다. Sylvain Lévi(1863~1935)를 필두로, Louis de La Vallée Poussin(1869~1938) Theodor Stcherbatsky(1866~1942), E.J. Thomas(1869~1958), F.W. Thomas(1867~1956) 등등.

Sylvain Lévi는 1887년에 Nishi Honganji의 두 일본승려를 제자로 두는 것을 기연으로 하여 불교에 관심을 돌린 뒤 거의 모든 저술에서 새로운 사실의 발견과 연구방향의 제시로 불교학계를 이끌었다. 漢字로 쓰인 佛經研究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인도불교사를 연구하려면 Tibet·중국의 자료를 공부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Aśvaghosa에 매료되어 1892년에 Buddhacarita 佛所行讚을 처음으로 번역했다. 1898년에 Nepal로 여행하여 Aśvaghosa의 Sūtrālamkāra의 Sanskrit원전본을 발굴 1907년과 1911년엔 Asanga의 Mahāyānasūtrālamkāra를 역출 Yogācāra학파연구의 신기원을 열었다. 1922년엔 Vasubandhu의 唯識二十頌 및 三十頌을 Nepal에서 발굴했고, 그의 제자 Félix Lacôte(1873~1925), Yamaguchi

Susumu등에 의해 다른 경전의 발견·역출이 계속되고 있다, 1928년에 Bali와 Java를 여행, Borobudur의 하층 회랑에 그려진 그림들이 Mahākarmavibhanga와 Karmavibhangopadeśa (Paris, 1932)를 그대로 묘사했음을 밝혔다.

Louis de La Vallée Poussin(1899~1938)은 Sylvain Levi의 수제자이지만, 연구경향은 스승과 달라 불교의 교리, 대승불교철학에 심취했다. 첫 노작은 밀교경전의 하나인 Pañcakrama의 편집·Ādikarmapradipa의 편집·번역에서 출발하여, 1897년 이래 Prasannapāda의 주석을 비롯한 대승 불교의 철학적 교리를 탐구했고, 1933년 Madhyamaka에 관한 종합적 연구논문을 썼으나 죽을 때까지도 최종적 결론을 내리지않았다. 그의 Abhidharmakośa 번역은 (6Vols. Paris-Louvain., 1923~1931) 俱舍學의 압권이며, 唯識分野에서도 Vijñaptimātratāsiddhi 成唯識論을 완역하였고 (Paris, 1928~1929), 불교논리학에도 손을 대어 Nyāyabindu의 Tibet본과 Vinītadeva의 주석을 편집했다(Calcutta, 1907~1913). Kārma, trikāya, pratītyasamutpāda등 불교의 철학적 교설을 다룬 전문적 논문을 Hastings의 Encyclopaedia of Religion and Ethics (12vol. 1908~1921, Index 1926)에 실는 한편, 불교를 대중에게 쉽게 이해시키기 위한 대중목기책들도 썼다. 불교, 그 역사와 교리(Paris, 1909) 열반에의 길(Cambridge, 1917), 열반(Paris, 1925), 불교윤리(Paris, 1927), 불교의 교리와 철학(Paris, 1930)등이 그 대표적 저술이며, 인도역사에 관해서도 5권의 책을 냈다. 그의 불교연구 가운데 일관된 주장의 하나는 불교가 Yoga의 한 갈래로 나타난 것이란 점과 열반에 대한 그의 중요한 연구열이다. 그의 수제자 Étienne Lamotte (1903~)는 解深密經의 번역(Louvain, 1935) Vasubandhu의 *Karmasiddhiprakarana*, Asanga의 *Mahayanasamgraha* 역출로 유명하다.

불교논리학의 연구엔 Theodor Stcherbatsky의 업적을 들 수 있다. 두권의 불교논리(Leningrad, 1930~1932)가 그 연구를 결산했다. dharma

나 nirvana에 대한 Stcherbatsky의 책은 크나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초기불교를 다원론적 경향에, 후기대승불교를 Kant식 선형철학에 비교한 것이 본래 구세적 종교인 불교의 진면목을 제대로 들어내지 못한다는 비평들이 있다. 그의 제자 Eugène Obermiller(1901~1935)는 Tibetan본 Ratnagotravibhāga를 역출하고, Abhisamayālamkāra 연구에 평생을 바쳤다.

Candrakīrti의 Prasannapadā를 연구한 Stanislas Schayer(1899~1941), Paul Tuxen(1880~1955), Sylvain Levi의 Āśvaghosa에 대한 열의를 이어 받아 Buddhacarita(Calcutta, 1936)를 완역한 E.H. Johnston(1885~1942)도 빼놓을 수 없는 학자들이다.

한편 Pāli어 연구에도 장족의 발전이 있었다. Denmark인 Dines Andersen(1861~1940)과 Helmer Smith(1882~1956)의 *Critical Pali Dictionary*의 첫권이 1924년부터 1948년 사이에 출판되었다. Geiger는 Magdalene과 함께 Pāli 문헌상에 나타난 dhamma의 원의를 천착했다.

Edouard Chavannes(1865~1918)과 Paul Pelliot(1878~1945)등 中國學者는 義淨研究를 비롯하여 中國승려의 인도성지순례에 관한 연구를 계속했다.

3. 3. 西歐 佛敎學의 現場(1943~)

1943년을 전후하여 전세기의 불교학계 거장들이 하나, 둘 타계하지만 Friedrich Weller와 Ernst Waldschmidt는 독일에서, Étienne Lamotte는 Belgium서, Erich Frauwallner는 Austria, Giuseppe Tucci는 Italy에서 계속 업적을 내고 있다. Stcherbatsky의 타계로 소련의 불교연구는 급격히 쇠퇴했으나, 최근 중앙아시아의 고고학적 연구로 차츰 불교에도 관심이 되살아 나고 있다. 서구의 불교연구인은 현재 일본 및 동방학자보다 숫적으로 열세이나, 저들의 연구열은 2次대전 이후로 계속 깊어지고 그대로 계속하면 앞으로 밝은 전망이 내다보인다.

우선 Franklin Edgerton(1885~1963)의 기념비적 사전 *Buddhist Hybrid Sanskrit Grammar and Dictionary*(New Haven, 1953)가 삼십여년의 노고 끝에 출간을 보고, 이로 인해 불교식혼성 Sanskrit語(BHS)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특히 Helmer Smith를 필두로 BHS의 여러 분류가 비판·시도되고, Edgerton 또한 그 뒤로 자신의 학설을 수정보완했지만, 불교학의 필수인 BHS는 현재까지 유일한 연구도구로 여겨진다.

Prakrit로 남아있는 유일한 불교경전 *Gāndhāri Dharmapada*는 John Brough (London, 1962)에 의해 편집, 출판되었다. 또 Sanskrit 경전 중 說一切有部 論書를 비롯한 제경전이 중앙아시아의 발굴사업에 힘입어 근년까지도 계속 세상에 나오고 있다.

초기불교사 분야에는 André Barean(1921~)의 노작 *Les sectes bouddiques du petit véhicule*, Saigon, 1955와 *Les premier conciles bouddiques*, Paris, 1955가 주목된다.

Pāli어 연구도 계속되어 1960년엔 *Critical Pali Dictionary* 2卷中 첫 分卷이 출판되었다. 1952년엔 Pali Text Society에서 Pāli Tripitakam Concordance의 첫 冊을 내기 시작했다.

후기 소승계통의 경전 가운데 *Saddharmasmṛtyupasthānasūtra*는 Lin Li-Kouang(1902~1945)의 노력끝에 *L'aide mémoire de la vrai loi* (Paris, 1949)로 佛譯되었다.

대승불교연구에도 박차가 가해져 반야경 계통은 Edward Conze (1902~)의 노작들이 계속 출판되고 있다. 서구 불교학자 가운데 Lamotte의 *大智度論* 번역은 완성되면 그 비중으로 따져 금세기 최대의 업적이라 할 수 있다. 대승불교 철학논서의 연구로는 龍樹의 諸著作에 관한 연구가 가장 활발하다. 그의 *中論頌*은 Jacques May, Stcherbatsky, Schayer, Lamotte, de Jong 등에 의해 부분적으로 번역되었고, 또 *Vigrahavyāvartani*는 E.H. Johnston과 Arnold Kunst에 의해 편찬되고, Kamaleswar Bhattacharya의 손으로 英譯을 보았다(*Journal of Indian Philosophy*, I,

1972, pp. 217~261) T. R. V. Murti의 中觀學派 연구서인 *Central Philosophy of Buddhism*(London, 1955)은 그 제목이 보여주는 대로 야심만만한 力作임에 틀림없으나, Jacques May 등의 지적대로 지나친 Kant철학적 편견이 삼입·도색되어 그 가치를 반감시킨다.

한편 Yogācāra 학파의 중요자료들이 중국 한자로 된 불경에 많이 남아 있는데, P. Demiéville의 *Yogācārabhūmi* 연구, V.V. Gokhale(1901~)의 *Abhidharmasamuccaya* 연구로 문을 연 뒤로, Prahlad Pradhan은 玄奘의 漢譯本의 도움을 받아 Walpola Rahula와 함께 *Bodhisattvabhūmi*를 完譯해 냈다. 中觀學派의 연구에 비하면 아직도 唯識學派의 연구는 요원한 감이 없지 않으나, 바로 그런 이유가 현재 서구불교학자들로 하여금 唯識學研究에 열을 올리게 하고 있는지 모른다.

如來藏계통의 주요경전 *Ratnagotravibhāga*는 E.H. Johnston (Patna, 1950)이 편집하고, 日人학자 J. Takasaki에 의해 英譯되었다(*A Study on the Ratnagotravibhāga* Roma, 1966) Tibet 자료를 많이 사용하여 David Seyfort Rugg는 如來藏에 관한 짝잡한 연구논서를 냈다(*La Théorie du Tathāgatagarbha et du Gotra*, Paris, 1969) 물론 Obermiller를 비롯한 몇몇 학자가 Tibet 자료를 원용한 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Rugg처럼 전적으로 Tibet 자료에 의거하여 연구업적을 낸 것은 처음이며, 이것은 앞으로 불교연구에 Tibet 자료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불교의 인식론은 Frauwallner를 비롯한 Vienna의 여러학자들에 의해 연구되고 있다(*Dignāga, sein Werk und seine Entwicklung; Materialien zur ältesten Erkenntnislehre der Karmamimāmsā*, Wien, 1959, 1968) Hattori Masaaki는 Dignāga의 *Pramānasamuccaya* 첫장 (*Dignāga On Perception*, Cambridge, Mass. 1968)을 영역했다. 이외에도 후기불교 인식론에 대한 연구가 Rāhula Sārikṛtyāyana, Raniero Gnoli, Tilman Vetter, Ernst Steinkellner 등에 의해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Tantrism 密敎분야는 이제껏 불교연구 가운데 가장 등한시 되어온 감이 없지 않다. G. Tucci의 *Tibetan Painted Scrolls*(Roma, 1949)가 상당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David Snellgrove(1920~)는 *Hevajratantra* (London, 1959)를 편집, 번역하여 심층연구의 첫 발을 디웠고 Ariane Macdonald는 *La Mandala du Mañjuśrimūlakalpa*(Paris, 1962)에서 Tibet 자료를 다량 원용하여 큰 성과를 보았다.

지난 삼십년간 인도불교에 관한 종합적 연구로서는 Lamotte의 *Histoire du bouddhisme indien, I* (Louvain, 1958)를 첫 손가락으로 꼽는데 주저할 사람은 없다. 불교의 흥기에서 시작하여 1세기말까지를 다룬 이 책은 인도불교사의 기본서다.

인도불교 외에 중국불교 Tibet불교, 일본불교, 한국불교에 관한 서구인의 업적은 아직 미미하다. 그러나 불교의 전반적 이해를 위해 각 지역과 각 종파의 심층연구, 또 이들 연구의 종합, 비교, 분석의 필요성은 날이 갈수록 깊이 느껴지고 있다. Tucci의 중국불교연구, Herbert V. Guenther(1917~)의 Tibet 불교연구가 현재 팔목의 대상이며, Erik Zürcher, Kenneth Ch'en, Demieville, D.T. Suzuki등이 西歐語로 中國佛敎史 및 禪에 관해 큰 업적을 내었고 또 내고 있다.